



미국 대통령기념관에서 배운다

‘김대중 기념관’ 글로벌 명소로

(10)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

배우고 즐기고 느끼고... 도시 전체가 생생한 콘텐츠

- 1 일명 '뉴욕의 개선문'으로 불리는 워싱턴 아치는 '어거스트 러쉬' 등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 2 1789년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했던 페더럴 홀 국립기념관.
- 3 미국 제1의 도시인 뉴욕은 타임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브로드웨이, 페더럴 홀 국립기념관, 워싱턴 아치 등 역사시설과 문화명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매년 450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맨하탄의 심장부에 위치한 타임스퀘어 전경.
- 4 뉴욕의 대표적인 문화명소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전경.

뉴욕=박진현 문화예술 선임기자

뉴욕발 금융위기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지난 2009년 9월14일, 글로벌 경제대란의 진원지였던 월스트리트에 세계인들의 시선이 쏠렸다.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인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 1주년을 맞아 금융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기념연설 때문이었다. "더 이상 월가(街) 사람들의 무모한 투자행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일침은 CNN 긴급뉴스 등으로 전 세계에 전파됐다.

그런데 이날 그의 메시지가 못지 않게 지구촌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연설장소였던 페더럴 홀 국립기념관(Federal Hall National Memorial·페더럴 홀)이다. 뉴욕 증권거래소를 마주보고 서 있는 그리스 신전풍의 '범상치 않은' 건물은 시청자들에게 금공증을 불러 일으켰다.

페더럴 홀은 지난 1789년 4월30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1732-1799)이 취임선서를 했던 유서깊은 곳이다. 이 건물 2층 발코니에서 워싱턴 대통령은 성경위에 오른손을 올려 놓은 채 "자유와 신성한 불꽃과 공화제 정부의 모델을 영구히 보존하겠다"라고 맹세했다.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털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새 시대의 혁신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는 신념을 천명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의 많고

대통령기념관 뉴욕 명소와 어울려 관광시너지  
 지난해 4525만명 방문...세계 역사교육의場  
 'DJ 브랜드 파워' 글로벌 명소 성공조건 충분

많은 '명소' 중에서 페더럴 홀을 선택한 이유를 짐작케 한다. 이런 역사적 상징성 때문인지 페더럴 홀은 종종 미국 정치의 중요한 무대로 등장하곤 한다. 취임식이 거행된 그 때의 상황을 고스란히 재현한 모형과 관련 사진, 인물들의 자료들은 뉴욕 커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특히 건물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웅장한 스케일의 워싱턴 대통령 동상은 월스트리트의 명물 '청동황소'(Wall Street Bull)와 더불어 맨하탄의 상징이 됐다.

미국의 제1도시인 뉴욕은 명실상부한 세계의 경제·문화 중심지다. 맨해튼 심장부에 위치한 타임스퀘어를 비롯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유의 여신상,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뉴욕현대미술관, 첼시, 브로드웨이 등 수많은 문화인프라들이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최근 뉴욕은 문화도시에서 글로벌 관광도시로 변신중이다. 지난해 뉴욕관광청이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뉴욕을 다녀간 관광객 수가 총 4525만 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860만명. 지난 1990년 이후 약 20년 동안 올랜드, LA에 내뒀던 제1 관광도시의 영예를 되찾았다.

뉴욕이 글로벌 관광지의 위상을 회복하기 까지는 역대 대통령들의 '공(功)'을 빼놓을 수 없다. 페더럴 홀을 비롯해 워싱턴 스퀘어 파크(Washington Square Park), 링컨 예술센터, 워싱턴 다리, 존.F 케네디 공항 등 대통령들의 이름이 붙여진 이들 랜드마크들이 문화인프라들과 어우러져 엄청난 관광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의 관광객들은 페더럴 홀에서 잠시 미국의 역사를 접하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매료된 애호가들은 링컨예술센터를 찾아 공연예술의 '뿌리'를 들추어 본다. 또한 맨하탄 남쪽에 위치한 그리니치 빌리지를 들른 관광객들은 1889년 조지 워싱턴 취임 100주년을 기념해 건립된 워싱턴 스퀘어내 높이 26m의 워

싱턴 아치(Washington Arch)에 앉아 자유분방한 예술가들과 대화를 나눈다. 대통령 기념시설들이 국경을 초월해 외국 관광객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나친 연속주의에 빠져 버려진 공간으로 머물고 있는 국내의 기념시설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포시가 고 김대중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중인 '노벨평화상 기념관'(2012년 12월 완공)과 신안군이 하의도 생가 옆에 조성중인 노벨평화공원, 전남도가 남약산도시에 추진중인 김대중 광장(3만1천400㎡)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다 합성득 교수(행정학과)는 "미국은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운영자료와 역사적 자료들을 전시한 기념관, 도서관, 대통령 스퀘어 등을 건립해 후손들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최고통치자의 철학과 업적을 고스란히 담은 기념시설은 그 자체가 박물관이자 값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기념사업이 보다 큰 틀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그의 '브랜드 파워'는 글로벌 명소로도 성공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노벨평화상 기념관과 하의도 노벨 평화공원이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끝> /jh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왕복항공으로 떠나는 **2011 여름방학 제주도 바캉스 상품 특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가 인증한 우수여행상품

왕복항공 2명이상 출발가능!! 다른 일정, 다른 날짜 출발가능

와~ 여름방학이다! 가깝고 아름다운 제주도로 떠나볼까~요!

관광도 하고 해수욕도 즐기는 바캉스 - 최고의 일석이조 여행 가족모두와 함께 할수 있는 새롭고 알찬 일정의 대박여행

**알뜰특가 패키지** 해수욕+관광열차+新제주관광명소 탐방 2박 3일  
 성인 ₩289,000원~ 아동 ₩249,000원~

**육해공 패키지** 마라도잠수함+우도유람선 투어+新제주관광명소 탐방 2박 3일  
 성인 ₩339,000원~ 아동 ₩299,000원~

해수욕장 자유이용권 1인 10,000원권 증정!!

공통포함사항 : 기사/가이드팀, 선택관광, 준비물(신분증, 세면도구) • 공통포함사항 : 광주-제주 왕복항공, 숙박, 식사(관광/특급 호텔은 석식 불포함), 일정내 관광요금, 여행자보험, ★전상품 유가할증료 포함 ※ 우도, 마라도 잠수함 사전예약 가능

★ 이호태우 해수욕장 자유시간 -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약수시음) - ★ 휴애리자연생태공원 - 국제평화센터 - ★ 꽃지생태소 및 물레길 체험 - ★ 코끼리소 - 평화박물관(일본군 지하요새) - ★ 제주에코랜드 생태공원 관광열차 체험 - ★ 조랑말체험 또는 트리트 - ★ 휘닉스아일랜드 해양공원

(주)부민가자투어 예약센터 광주 Tel.(062)382-8201 제주 (064)748-3131